

글로벌 금융시장 동향 및 전망

김 한 수

국제금융실 연구위원



1. 글로벌경제 동향

2013년 세계경제 완만한 성장세 예상

❖ 2012년 3분기 이후 글로벌경기 회복 기대 확산

- 2012년 상반기 유럽위기 심화, 신흥국 경제 둔화 등으로 하락세를 보였으나, 하반기 들어 점차 회복세를 보이고 있음
 - 글로벌 제조업지수는 2012년 9월 이후 개선 양상
- 주요국 양적완화조치 등 경기부양 노력이 세계경제 회복에 기여
- 미국과 중국 경기회복 정도에 따라 회복속도 결정될 것으로 예상
 - 미국 하반기 경기회복, 중국 완만한 성장세 예상 시각 다수
 - G2 중심으로 수입수요 증가 및 세계 교역량 증가 전망 (IMF: 세계교역량 증가율 3.2%(2012) → 4.5%(2013))

주요기관 세계경제 성장률 전망

	세계	선진국	미국	유로존	일본	신흥국	중국	인도	브라질
2011	3.8	1.6	1.8	1.4	-0.8	6.2	9.2	6.8	2.7
2012									
IMF	3.3	1.3	2.2	-0.4	2.2	5.3	7.8	4.9	1.5
OECD	2.9	1.4	2.2	-0.4	1.6	-	7.5	4.5	1.5
주요 IB	2.8	1.2	2.2	-0.5	1.5	5.2	7.7	5.2	1.2
2013									
IMF	3.6	1.5	2.1	0.2	1.2	5.6	8.2	6.0	4.0
OECD	3.4	1.4	2.0	-0.1	0.7	-	8.5	5.9	4.0
주요 IB	2.9	1.0	1.7	-0.4	0.4	5.3	8.1	6.3	3.5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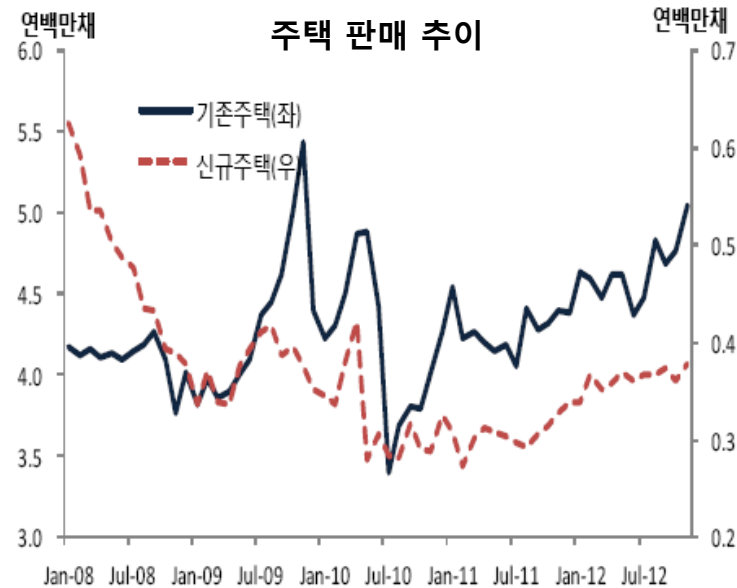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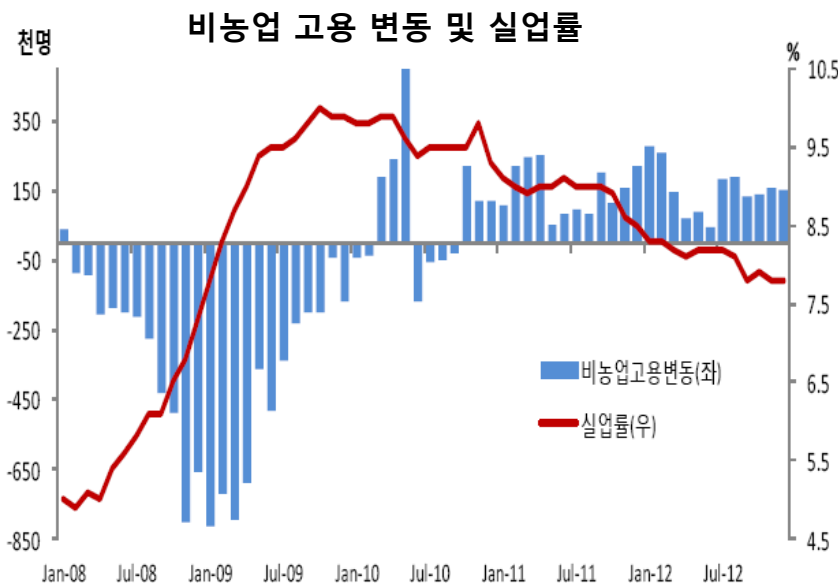
미국: 잠재성장을 밀도는 완만한 성장세 지속

❖ 민간부문 경제활동 회복, 정부부문 위축 예상

- 주택시장 및 고용상황 등 민간부문 경제회복세 가시화
 - 2011/11월 주택판매증가 3년래 최고수준 / 주택투자는 2013년 14% 증가 예상
 - 비농업 고용 증가세 지속, 실업률 소폭 하락 등 고용지표 개선 지속
- 재정 건전화를 위한 긴축재정으로 정부부문 위축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

❖ 상저하고형 2%대 성장 전망

- 재정이슈로 인한 불확실성 등으로 상반기 저성장 예상되나 QE3에 따른 자산효과 지속 등 하반기 회복 전망



유럽: 상반기 중 경기침체 지속

❖ 2013년 상반기 경기침체 기조지속 예상

- 재정위기 영향으로 2012년 2분기 마이너스 성장 이후 둔화세 지속
 - 주변국 침체가 장기화되고 있으며 중심국의 성장세 또한 위축
- 재정긴축으로 인한 성장수축 효과, 내수위축 등으로 2013년 상반기 중 둔화세 지속 예상
 - GDP 1% 규모의 재정긴축은 GDP 0.42% 축소(EU 집행위 연구)
- ECB의 양적완화 효과 확대 및 대외수요 회복 등이 예상되는 하반기 이후 개선될 가능성

유로존 주요국 성장률 전망

	전망기관	2012	2013	2014
유로존	OECD	-0.4	-0.1	1.3
	ECB	-0.5	-0.3	1.2
독일	OECD	0.9	0.6	1.9
	연방은행	0.7	0.4	1.9
프랑스	OECD	0.2	0.3	1.3
	통계청	0.1	0.1	-

Most of Europe in Recession

Dec 2012

- Expansion
- Recovery
- At risk
- In recession



Source: Moody's Analytics

중국: 완만한 회복세 실현 / 일본: 성장률 하락

❖ [중국] 2012년 3분기 저점 이후 반등하여 2013년 8% 내외 성장전망

- 2012년 3분기 성장률 7.4%로 7분기 연속 하락; 3분기 이후 소비 생산 등 내수 중심 경제지표 개선
- 대규모 부양책 가능성은 낮으며, 선별적 부양책과 유동성 공급 확대 예상
 - 정부차원 경제지원 보다는 성장구조 전환에 따른 경제 불균형 해소 및 내수중심 성장전략을 추구에 주력할 것으로 예상되어 성장률이 크게 높아지기는 어려움

❖ [일본] 수출감소세가 내수 위축으로 파급되어 성장률하락 지속 전망

- 5분기 연속 무역적자 기록; 경기부진 시 정부 대규모 경기부양조치 가능

중국 경제성장률 전망

	2012	2013	2014
IMF	7.8	8.2	8.5
OECD	7.5	8.5	8.9
World Bank	7.9	8.4	8.0
8개 IB 평균	7.7	8.0	8.1
중국사회과학원	-	8.5	-
중국국가정보센터	7.7	8.0	-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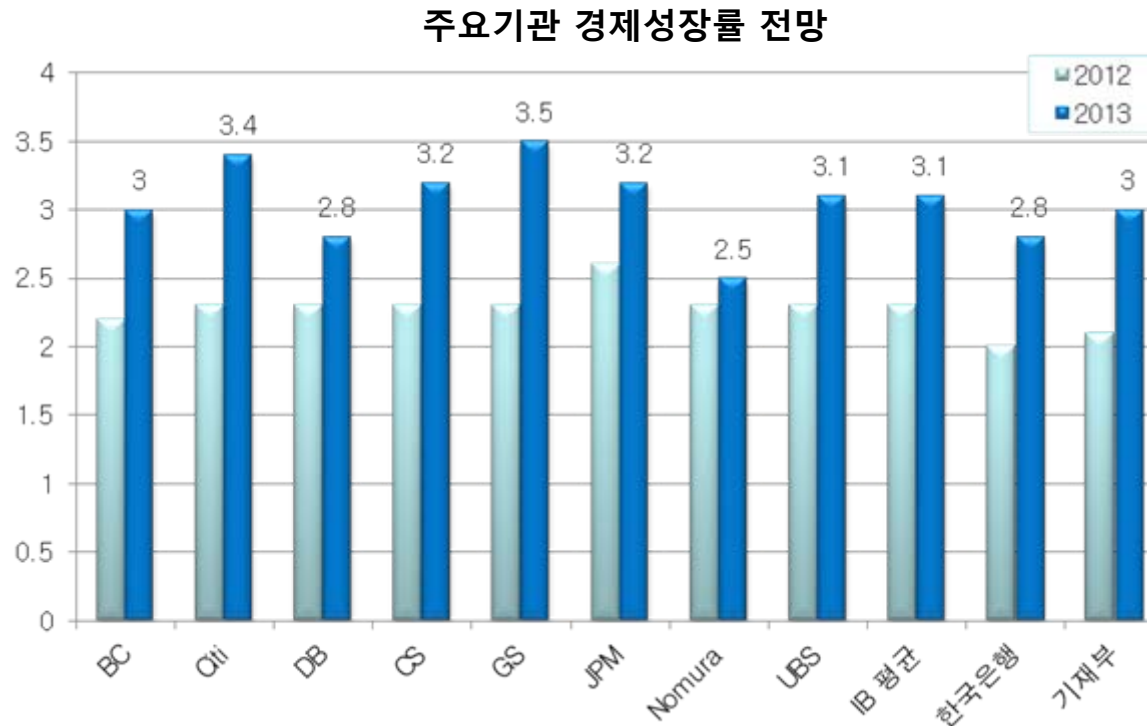
일본 경제성장률 전망

	(전망시점)	2012	2013
IMF	2012.10	2.2	1.2
OECD	2012.11	1.6	..
8개 IB 평균	2012.12	1.9	0.7
일본7개기관	2012.12	2.0	0.6
일본은행(FY ¹⁾)	2012.10	1.5	1.6

국내경제 동향 및 전망 (1)

❖ 2013년 국내경기 점진적 반등 기대

- 2012년 하반기 수출감소 및 내수부진으로 성장률 둔화
 - 민간소비증가율 3분기 연속 1% 대; 2012년 1~3분기 중 수출 1.5% 감소
- 대외여건 개선으로 2013년 점진적 경기반등 예상



국내경제 동향 및 전망 [2]

❖ 부문별로 소폭 개선 예상

- (민간소비) 불확실성 완화 및 물가안정 지속 등으로 전년대비 확대 예상; 가계부채부담 및 주택시장 부진 등 부정적 요인 상존
- (건설투자) 부동산 경기회복이 관건이나, SOC 예산 소폭 증가 및 기저효과 등으로 일부 개선 예상
- (설비투자) 일부 경기회복에 따른 투자수요 확대 예상되나, 대외 불확실성 잔존 및 일부 업종 유희시설 존재 등 빠른 회복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
- (무역수지) 미국, 중국 등 경기개선에 따라 수출증가세 제한적 확대 예상; 원화 강세의 부정적 효과 예상되나 수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

❖ 2013 고용·물가 안정세 유지

- 하락/상승요인 상쇄로 고용수준은 전년 대비 비슷한 수준 예상
 - 성장둔화, 기저효과 등
- 원자재가격 안정세 유지; 전세가격 상승, 내수 회복 등으로 소폭 상승
 - 한국은행 2013년 연중 소비자물가 상승률 2.5% 전망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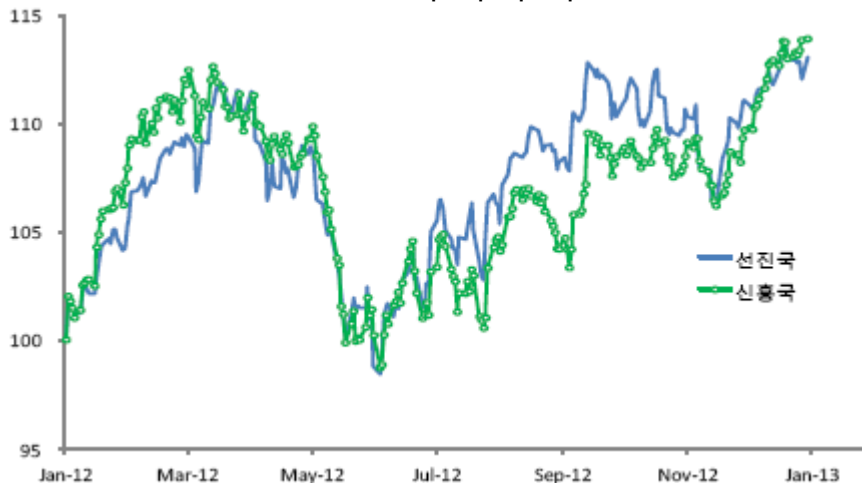
2. 국제금융시장 동향

2012년 글로벌 증시 반등에 성공

❖ 2012년 글로벌 증시는 전년 대비 13% 상승

- 선진국 13.2% / 신흥국 13.9% 상승
 - 일본 22.9%, 유로존 15.5%(독일 29.1%), 인도 25.7%, 중국 3.2%, 등
- 주요국 중앙은행들의 통화정책 완화가 증시 반등의 주 요인
- 장기적으로는 2010년 이후 상승세 둔화; 3년간 박스권 등락 반복

<2012 주가 추이>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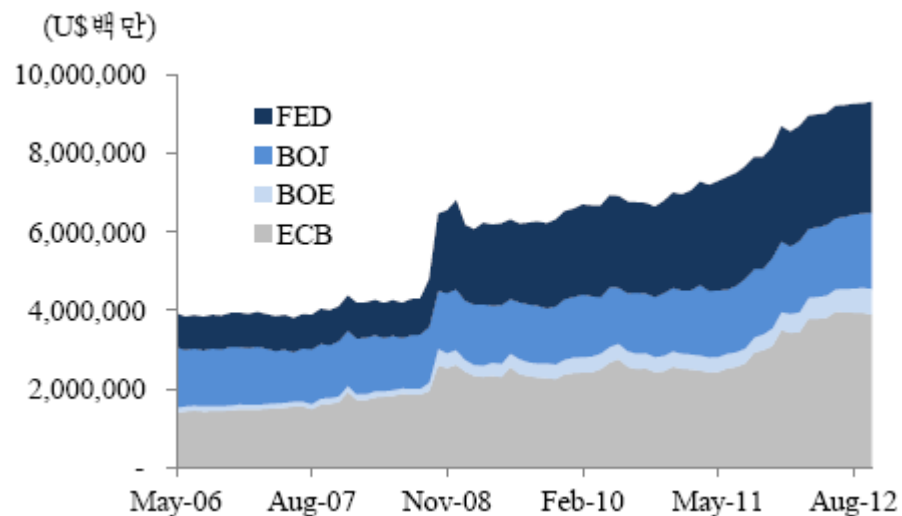
<기준금리와 세계주가>



글로벌 유동성 공급확대 지속

❖ 4대 중앙은행 유동성 증가 확대

- 금융위기 이후 미, 영, 유로, 일본 중앙은행 합계 총 5조 달러 공급
 - (FRB) 2.35조, (ECB) 1.3조, (BOJ) 0.8조, (BOE) 0.6조
- QE3, OMT 등 글로벌 유동성 공급 지속 예상



	Fed QE3	ECB OMT	BOJ QE	BOE QE
규모	월 US\$400억 (총액미정)	무제한	(10월)+¥11조 ⇒ 총한도 ¥91조	(7월)+£500억 ⇒ 총 £3,750억
매입대상	MBS	1~3년 만기 국채	장단기국채 각각 ¥5조 + 회사채 ¥0.9조	국채
기간	고용상황호전될 때까지무기한 (Open-Ended)	ECB 목표를 충족할때까지 무기한	'13년말까지	추가 £500억 10월말 매입완료
기준금리	15년 중반까지 0~0.25%	0.75%	0~0.1%	0.5%

주요국 통화 및 금리 현황

❖ 주요국 통화는 양적완화 확대에 따라 약세 또는 보합 유지

- 미 달러화는 안전자산 수요로 강세를 보였으나, QE3 등 추가 완화조치 이후 보합권으로 후퇴
- 유로화는 위기국 재정불안 등으로 제한된 범위 내 등락 지속
- 일본 엔화는 연이은 양적완화, 무역적자 지속 등으로 약세

❖ 글로벌 유동성의 신흥국 유입으로 인한 신흥국 통화 강세 재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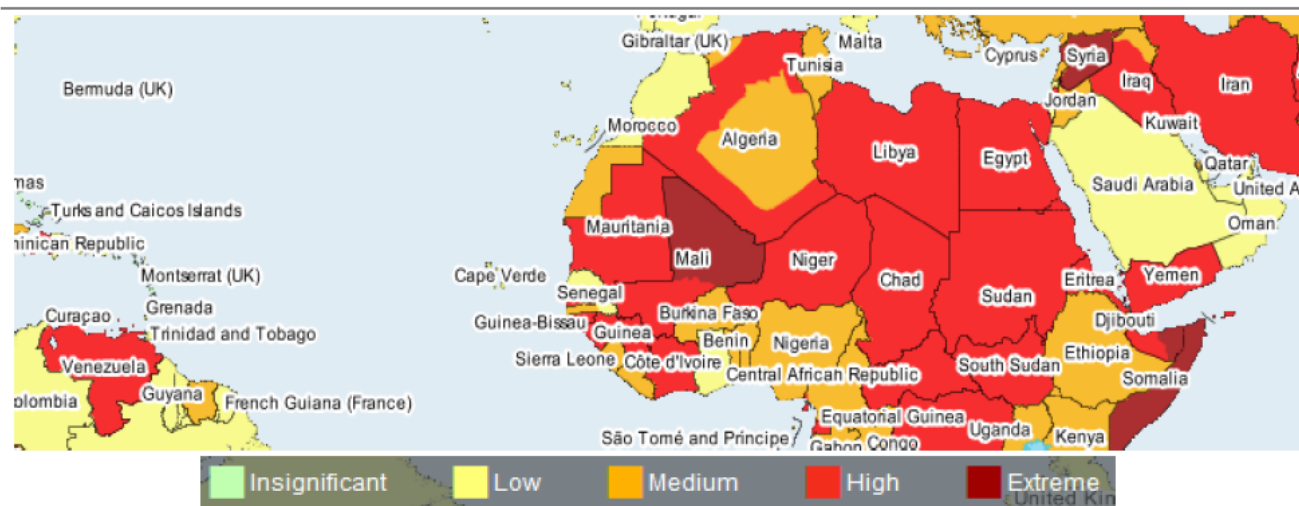
- 신흥국 통화는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한 일시적 약세 이후 주요국 양적완화 조치확대로 강세 전환
 - 중국 위안화는 경기 경착륙 우려 등으로 약세 에서 강세 전화
- 신흥국 수출 부진이 가시화될 경우 환율 갈등 격화 가능성

❖ 주요국은 초저금리 유지 / 신흥국 경기회복 부진으로 정책금리 인하

- (주요국)미, 영, 일 등 초저금리 유지, ECB 2012/7월 인하(0.75%)
- (신흥국)브라질 -375bp, 중국 -56bp, 한국 -50bp 등

❖ 글로벌 경기 점진적 회복에도 공급확대로 유가 안정세 유지

- 원유 공급여건 개선되고 있으며, 주요국 경기부진으로 인한 수요둔화로 수급 안정세 지속 예상
 - 이란산 원유 금수조치 이후 이라크, 리비아 및 非 OPEC 국가 원유 생산량 증가로 재고 증가세 지속
 - IEA는 경기둔화/공급증가로 일평균 134만 배럴 초과공급 예상
- 지정학적 리스크, 글로벌 유동성 확대가 주요 변수로 주목
 - 이란 핵문제 관련 강경대응 여부, 유동성 확대에 따른 자금흐름 변화 등 변수가 유가 등락 주도



3. 주요 리스크 요인

美: 재정절벽(Cliff) → 재정비탈(Slope)

❖ 재정절벽 현실화 가능성 낮으나, 불확실성 증가로 인한 경기부진 초래 가능성

- 연말 재정절벽 합의는 일부(증세부분)만 포함
- 국가부채상한, 예산안확정, 자동예산삭감 일정 등 주요 이슈에 대한 협상 난항 지속
 - 공화당: 증세허용 등으로 대폭 지출삭감 요구 / 민주당: 재정상한에 대한 국회 동의 불필요한 방안 촉구 등 강경발언 속출
- 재정관련 불확실성 증가는 소비심리 위축을 초래
 - 주요 IB 상반기 경제성장률 전망 하향 조정 (1분기 1.6%, 2분기 2.1%)

❖ 재정지출 대폭삭감 시 경기회복 지연 우려

- 재정지출 일부 삭감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
- 양적완화로 본격화되기 시작한 경기회복세 하향 반전 우려
 - 일부에서는 고실업/저성장이 지속되는 뉴노멀(New Normal) 시대 돌입 우려

유로존 재정위기 불확실성 잔존

❖ ECB 무제한 국채매입 발표 이후 유로존 금융시장 안정세

- OMT 발표 이후 스페인, 이탈리아 국채금리 하락; 그리스는 국가부채 감축기한 연장에 합의 등 불확실성 일부 해소

❖ 주요국 정치 및 리더십 리스크, 상반기 국채만기 집중 등 리스크 상존

- [그리스] 유로존 잔존여부 불확실
 - 유로존 이탈 시 거시경제충격(3년래 GDP 50% 수준) 회피를 위한 잔존희망으로 판단되나, 실업자 증가, 임금감소 등 국내 불만 증가
- [스페인] 구제금융 우려 재부각 가능성
 - 최근 5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 기록, 은행권 부실자산 비중 10.7% 등 경제상황 악화 지속
- [이탈리아] 2월 조기총선에 따른 불확실성 우려
 - 시장지지 높았던 개혁주도 몬티총리 재집권 가능성 낮음
 - 긴축에 소극적인 베를루스코니 내각 성립 시 기존 개혁정책 전환 가능성 증가에 따른 시장 불확실성 확대
- [독일] 총선에 따른 리더십 약화 우려
 - 총선 경합 예상됨에 따라 야권 집권 시 유로존 정책공조 어려움 예상

주요국 정책 실효성 감소 및 신흥국 성장 둔화 리스크

❖ 주요국은 재정긴축과 양적완화를 동시에 실시에 따른 정책효과 감소

- 재정문제에 당면한 주요국은 긴축을 통한 재정건전화와 고용창출 및 경기부양을 위한 양적완화의 두가지 상반된 방향의 정책을 동시에 실시
- 긴축재정과 양적완화라는 두 정책의 조합은 한계에 봉착
 - 재정긴축 긴축재정에 따른 재정승수 효과 배가로 인해 경기부진 지속가능성 상승
 - IMF는 최근 보고서를 통해 재정 긴축이 경제에 미치는 승수 효과가 1.7배에 달한다는 연구결과를 제시

❖ 신흥국 경기 둔화 리스크

- 중소득 공업국(일인당 GDP 1만달러 이상/제조업 비중 10% 이상, 전세계 GDP 32% 차지)의 성장세 약화는 이미 가시화
 - [브라질] 주요 수출상대국인 유럽과 중국의 경기 둔화로 2012 1%대 성장 기록
 - [인도] 인플레이션 압력 증가, 재정·경상 적자 지속, 산업생산 위축 (성장률 6.8%(2011) → 4.9%(2012))
 - [러시아] 내수부진으로 전년대비 성장세 둔화